

오토바이 교통사고 줄었지만 인명 피해 여전



전남광주지역 이문자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인명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이문자 사고로 70명이 숨지고 3300여 명이 다쳤으며, 매년 1000명 안팎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신호위반과 인도주행, 난폭운전 등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이 이어지는 데다 여름철 빗길까지 겹치면서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전남광주지역 이문자 교통사고는 2023년 908건(사망 28명·부상 1193명), 2024년 814건(사망 18명·부상 1120명), 2025년 766건(사망 24명·부상 987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사망자와 부상자는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328건(사망 48명·부상 1622명)으로



교육·단속 강화에도 최근 3년간 70명 사망·3300명 부상 신호위반·인도주행 빈번...여름철 빗길사고 위험도 증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435건(사망 9명·부상 668명), 기타 법규위반 263건(사망 7명·부상 371명),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47건(사망 1명·부상 211명), 안전거리 미확보 139건(사망 1명·부상 194명), 중앙선 침범 96건(사망 4명·부상 138명),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80건(부상 96명) 순이었다. 대부분 기본적인 교통법규와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실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6시40분께 전남광주통

합특별시 남구 송하동 광주대학교 입구 교차로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오토바이 3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2명과 20대 남성 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신호가 바뀌기 전 출발하는 이른바 '예측 출발'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광주 동구 충장동 한 도로에서 20대 이륜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전방주

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는 여전히 위험한 운행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무안군 이동노동자센터에서 배달 총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이문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안전도 미착용 등 주요 위반 사례와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해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광주경찰청도 배달대행업체를 찾아 예방 홍보 활동을 벌이는 한편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도심 주요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이문자 법규위반 71건이 적발됐다. 음주운전이 9건(면허정지 5건·취소 4건), 도로교통법 위반 33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27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2건이었다.

그러나 도심 곳곳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운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과 전남대학교 후문 일대에서는 인도로 올라탄 이륜차가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보행자들은 갑작스러

운 이륜차 통행에 걸음을 멈추거나 몸을 피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주행을 이어갔다.

여름철에는 빗길도 또 다른 위험요인이다. 이문자는 두 바퀴로 균형을 유지하는 구조적 특성상 빗길이나 도로 파임, 모래, 낙엽 등을 밟는 순간 쉽게 미끄러질 수 있다. 급제동이나 급조향 과정에서 균형을 잃기 쉬워 전도·전복 사고 위험이 자동차보다 훨씬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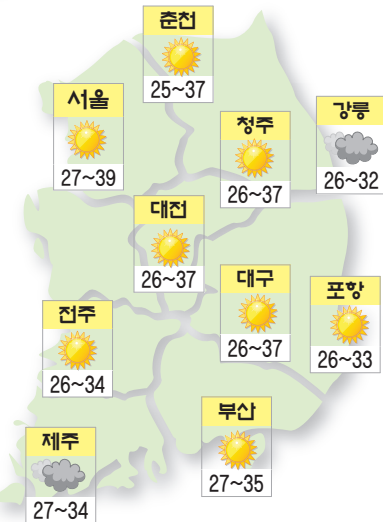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급가속과 급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타이어 마모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모와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신호 준수와 안전거리 확보,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

오늘의 날씨

예보	05:46	날씨	--:--
해질	19:30	달림	14:31



광주	☀️	26~38
목포	☀️	26~33
여수	☀️	26~35
순천	☀️	26~36
구례	☀️	25~36
광주	☀️	26~36
해남	☀️	26~36
완도	☀️	26~35
흑산도	☀️	26~34
고흥	☀️	26~36
진남	☀️	26~35
진도	☀️	26~35

목포	밀물(고)	07:46 / 20:36
여수	밀물(저)	00:52 / 13:14
	밀물(고)	02:09 / 15:49
	밀물(저)	08:48 / 21:56

남구,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인권 평화 문화제’

12~14일 양림동 일원서 시민 참여형 행사 다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는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남구 인권 평화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문화제는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기림과 동시에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면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남구 양림동 일원에서는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먼저 양림동 평화의 소녀상 및 야외 광장 앞에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시민들이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기억공간이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추모 메시지 작성과 전시

관람 등을 통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시민들과 함께하는 ‘통일 올레 시민 평화 걷기’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오는 12일 오후 4시부터 양림동 일대를 걸으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공간을 함께 돌아보며 평화의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5시30분부터 양림동 평화의 소녀상 및 공예거리 내 야외 광장에서는 제9회 남구 인권 평화 문화제가 막을 올린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인권과 평화 분야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계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



동구 스마트 그늘막 점검 폭염이 기승을 부린 6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동에서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실 직원들이 스마트 그늘막 작동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16.2%’

초·중·고 157개교 중 전액 미납 5곳·완납 12곳

전남광주 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16.2%에 그치면서 교육청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5년도 초·중·고 사립학교 157개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7개 사립학교의 올해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총 335억2000여만원이었지만, 사학법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54억3000여만원으로 평균 납부율은 16.21%에 불과했다.

미납된 금액은 교육청 재정결합보조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사 관할 학교의 평균 납부율은 14.46%. 전남 학교는 19.36%였다.

법정부담금을 한 톨도 부담하지 않은 학교는 광주서석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영산중 등 5개교였다.

반면 금호중앙중, 금주고, 금호중앙여

고, 금파공고, 여도초, 광양제철초·남초, 여도중, 광양제철중·고, 능주중·고 등 12개교는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체는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족분이 시민의 세금으로 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학정책팀이 행정국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사학 지도·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병무청 난동 40대 검찰청

〇···광주전남지방 병무청에 “용병으로 받아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술에 취해 청사 시설물을 부순 40대 남성이 결국 검찰청. 광주 동부경찰청은 6일 공용건물 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4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학동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상의를 벗고 주차장 차단기와 안내 간판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아.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를 뿌리치며 경찰관의 가슴을 때린 혐의도 추가.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무청에 용병으로 지원하려 했는데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중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4일 영장을 발부. “용병 지원”이라는 황당한 이유보다 술김에 저지른 난동의 대가가 무거웠다는 뒷말.

동부경찰 관계자는 “무질서에는 원칙을 갖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당부.

송태영 기자 sty1235@

전국 RCY 1200명 목포서 ‘희망’ 외쳤다

대한적십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가 5일부터 7일까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목포시 일원에서 ‘2026 RCY 전국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RCY 단원과 지도자 등 12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캠프는 전남에서 17년 만에 열리는 전국 단위 RCY 행사이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 인도주의 행사다.

청소년-지역사회 함께하는 ‘인도주의 미래선언’

해양안전·평화·봉사 체험···미래시민 성장 약속

5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린 개영식에서는 전국 RCY 청소년들이 단원만예를 통해 인도주의 실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청소년의 약속에 지역사회가 함께 응답하는 ‘청소년 인도주의 활동 지원 위한 미래선언’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바다처럼 깊게, 평화처럼 넓게, 함께 하는 RCY”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캠프는 인도주의 가치교육과 안전교육, 진로체험, 지역문화 체험, 청소년 교류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심폐소생술(CPR), 재난안전 교육, 국제인도법 등 적십자의 핵심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생명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배운다.

국립목포해양대와 연계한 해양안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실습선 견학과 삼학도 크루즈 안전체험, 국립해양문화 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의 해양 인프라를 활용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전남의 역사와 문화도 캠프 곳곳에 담겼다. 참가자들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찾아 평화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벨평화상 정신과 국제적십자

회의 인도주의 가치를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판소리와 남도문화 체험, 전통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전남의 문화적 자산을 직접 경험한다. 지역 먹거리 체험도 이어진다. 완도 전복죽과 나주곰탕 등 전남 대표 향토음식을 맛보고, 보성 녹차와 곶감 유자차, 구례 산수유 등 지역 특산물을 접하며 전남의 식문화와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지역 브랜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캠프에서는 대학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된다. 해양경찰과 대학, 적십자 안전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한적십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 관계자는 “이번 전국캠프는 단순한 체험행사를 넘어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인도주의의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문화와 해양자원,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연계해 대한민국 청소년 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